

2월 CBSI 4.4p 상승한 66.7 기록

- 통계적 반등, 계절적 요인 영향 소폭 상승,
지수 자체는 여전히 60선으로 건설경기 침체 지속 -

- 2012년 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4.4p 상승한 66.7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1월에 연초 공사발주 물량 감소,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위기 채부상 등의 영향으로 20개월만에 최대 낙폭인 9.3p가 하락하며 17개월만에 최저치인 62.3을 기록했음.
- 2월에는 전월인 1월에 CBSI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부진했던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과 통상 2월에는 1월에 비해 CBSI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CBSI가 소폭 상승함.
- 그러나, CBSI 상승 폭이 전월의 하락 폭에 비해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CBSI 자체도 여전히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에 불과하여 건설경기는 아직 심각한 수준의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3월 CBSI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7.0p 상승한 73.7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7.0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3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2월보다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3월에는 호한기가 지나면서 공사발주 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3월 CBSI 전망치도 이러한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망 지수 자체는 73.7로 기준선인 100.0에 여전히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건설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소기업체 지수가 전월비 상승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하락함.
 - 지난 1월에 전월비 6.4p 하락한 76.9를 기록해 5개월만에 80선 아래로 하락했던 대형업체 지수가 2월에는 전월비 16.0p 상승한 92.9를 기록하며 2월 CBSI 상승을 주도함.
 - 작년 11월 이후 지난 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13.2p 상승)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2월에는 전월비 11.3p 하락한 58.3을 기록함.
 - 지난 1월 25.0p 하락하며 1월 CBSI 하락을 주도했던 중소기업체 지수는 2월에는 전월비 8.8p 상승한 45.6을 기록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1.4, 90.4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9.5, 64.7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79.2, 73.6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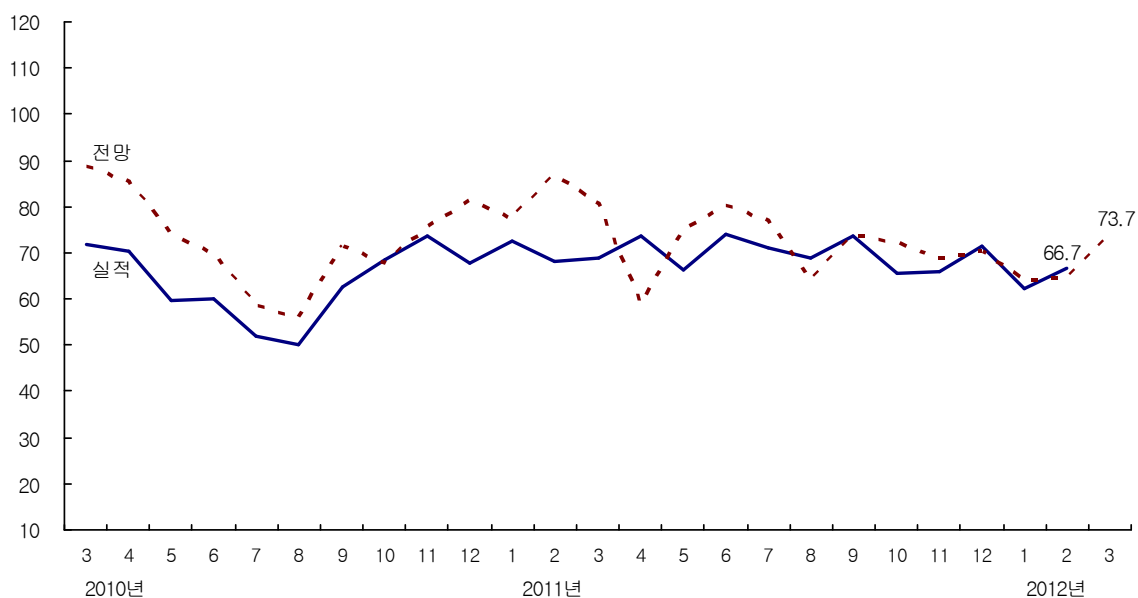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월 CBSI 통계적 반등, 계절적 요인 영향 소폭 상승

- 2012년 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4.4p 상승한 66.7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1월에 연초 공사발주 물량 감소,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상 등의 영향으로 20개월만에 최대 낙폭인 9.3p가 하락하며 17개월만에 최저치인 62.3을 기록했다.
- 2월에는 전월인 1월에 CBSI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부진했던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과 통상 2월에는 1월에 비해 CBSI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CBSI가 소폭 상승함.
- 그러나, CBSI 상승 폭이 전월의 하락 폭에 비해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CBSI 자체도 여전히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에 불과하여 건설경기는 아직 심각한 수준의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소기업체 지수가 전월비 상승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하락함.
 - － 지난 1월에 전월비 6.4p 하락한 76.9를 기록해 5개월만에 80선 아래로 하락했던 대형업체 지수가 2월에는 전월비 16.0p 상승한 92.9를 기록하며 2월 CBSI 상승을 주도함.
 - － 작년 11월 이후 지난 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13.2p 상승)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2월에는 전월비 11.3p 하락한 58.3을 기록함.
 - － 지난 1월 25.0p 하락하며 1월 CBSI 하락을 주도했던 중소기업체 지수는 2월에는 전월비 8.8p 상승한 45.6을 기록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1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1월	2월		3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3.8	66.3	74.1	71.1	68.9	73.8	65.4	66.0	71.6	62.3	66.7	64.4	73.7
규모별	대형	107.7	76.9	83.3	84.6	76.9	100.0	84.6	84.6	83.3	76.9	92.9	69.2	85.7
	중견	58.3	66.7	73.9	72.0	75.0	73.1	68.0	64.0	68.0	69.6	58.3	72.7	78.3
	중소	51.8	53.6	63.6	54.4	52.6	43.9	40.0	46.4	61.8	36.8	45.6	49.1	54.4
지역별	서울	87.9	68.6	77.4	80.2	78.4	91.6	74.1	73.9	72.5	73.7	81.4	67.6	81.5
	지방	53.3	62.9	71.2	57.2	54.6	47.5	52.7	53.8	70.1	47.5	46.5	61.6	63.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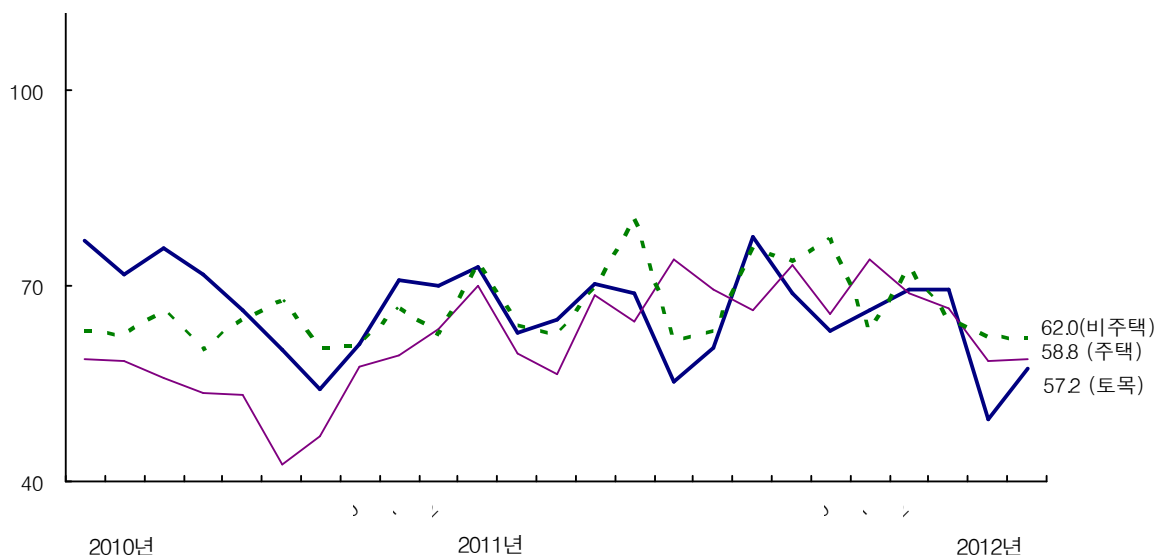
- 한편, 3월 CBSI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7.0p 상승한 73.7을 기록함.
 -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7.0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3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2월보다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 통상 3월에는 흑한기가 지나면서 공사발주 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3월 CBSI 전망치도 이러한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 그러나, 전망 지수 자체는 73.7로 기준선인 100.0에 여전히 많이 못 미치는 데 때문에 건설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2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7.7p 증가해 지수가 개선된 반면, 지방업체는 지수는 1.0p 감소해 지수가 더욱 악화되었음.
 -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7.7p 증가한 81.4로 최근 5개월 사이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서울업체 지수가 개선된 것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물량 지수가 상승한데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지난 1월 정부의 토목 발주 감소로 전월대비 22.6p 급락한 47.5을 기록하였음. 통상 지수가 20p 이상 급락하면 다음 달에 통계적 반등으로 지수가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2월에는 다시 1.0p 감소한 46.5로 더 악화됨.
 - － 결국 지방업체 지수는 지난 2010년 1월 46.2 이후 가장 낮은 46.5를 기록, 지방의 건설경기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2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4.8p 증가한 61.4

- 2월 공사 물량지수는 비록 계절적인 영향으로 지수가 4.8p 소폭 회복 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 61.4로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물량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물량지수는 지난 1월에 56.6으로 지난 2010년 8월 52.6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매우 부진하였음.
- 2월 물량 지수는 1월지수 보다 4.8p 증가한 61.4로 지수가 소폭 개선됨.
- 통상 2월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여 지수가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올 2월 지수는 전체 공사 물량지수 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2월 지수로는 역대 최저치임. 결국, 기업들이 2월에 체감하는 물량 상황이 10년 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토목물량 지수가 전월대비 7.7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60선 미만인 57.2에 불과하고, 주택과 비주택 물량 또한 58.8, 62.0에 그쳐 기업들이 체감하는 물량상황이 공중에 상관없이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 토목 물량지수는 연말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했던 토목 공사가 감소해 지난 1월에는 20.0p나 급락한 49.5를 기록, 매우 부진하였음.
 - － 2월 들어 지수가 전월보다 7.7p 증가한 57.2를 기록해 소폭 회복되었으나 이는 1월 20p나 하락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에 불과함.
 - － 또한 지수 자체도 60선 미만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토목물량의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대비 0.4p 증가한 58.8로 지난 1월(58.4)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물량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0.1p 감소한 62.0을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대형업체가 전월보다 16.5p 증가한 85.7로 대형업체 중심으로 지수 개선이 이뤄짐.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대비 3.5p 하락한 31.6으로 중소기업의 물량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2월 85.7을 기록해 지수가 지난 1월 69.2보다 16.5p 상승함. 공종별로는 주택 물량지수가 전월 보다 16.5p 증가한 85.7로 주택물량 상승이 대형업체 물량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됨.
 -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1월과 동일한 62.5로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공종별로는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18.1p 증가한 63.6으로 지수가 10p 이상 회복되었으나, 주택 물량지수가 전월 대비 14.5p 하락한 52.2로 부진하였음.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1.4	85.7	62.5	31.6	73.9	44.5
	전망	76.6	92.9	83.3	50.0	83.7	67.9
토목	실적	57.2	71.4	63.6	33.3	67.2	44.0
	전망	70.3	78.6	77.3	52.7	75.6	64.4
주택	실적	58.8	85.7	52.2	34.7	67.7	45.5
	전망	69.9	85.7	73.9	46.9	77.2	59.2
비주택	실적	62.0	78.6	65.2	38.9	70.1	49.7
	전망	72.7	92.9	69.6	52.7	79.8	62.3

주 : 실적은 2012년 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3월 예측지수임.

- － 한편,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3.5p 감소한 31.6을 기록함. 이는 지난 2010년 8월 25.9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중소기업체의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특히, 중소기업체 물량지수는 토목 뿐만 아니라 주택과 비주택 모든 공종의 물량지수가 30선에 불과함. 중소기업체 모든 물량지수가 40선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8년 11월, 2010년 7~8월로 건설경기가 매우 악화된 시기와 일치함.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8.3p 증가한 반면, 지방업체는 0.6p 감소해 지방업체의 물량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8.3p 증가한 73.9를 기록해 두달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 －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던 토목물량의 감소로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2012년 1월에 25.0p 급락한 45.1을 기록하였음. 2월에도 0.6p 감소한 44.5에 그쳐 부진한 모습을 보임.
- 2012년 3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2월 실적치보다 15.2p 증가한 76.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침체 정도가 소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 공종별로 토목 물량지수는 2월 실적치보다 7.7p 증가한 70.3으로 지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통상 2~3월 사이 토목 물량지수가 5~8p 개선되는 것을 감안, 계절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 주택 물량지수는 2월보다 11.1p 증가한 69.9로 전망함. 1월과 2월 주택 물량 지수가 50선에 불과하였는데 3월에는 70선에 근접할 전망이다.
 - － 비주택 물량지수는 2월보다 10.7p 증가한 72.7로 타 공종에 비해서는 그나마 양호할 전망이다.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 및 자금조달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1.4, 90.4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9.5, 64.7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79.2, 73.6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79.2	100.0	70.8	64.4	89.6	63.4
		전망	82.0	100.0	75.0	69.0	89.6	70.4
	자금조달	실적	73.6	100.0	62.5	55.2	84.9	56.3
		전망	74.2	100.0	62.5	57.1	81.7	64.6
인력	수급	실적	91.4	92.9	95.8	84.5	91.1	93.3
		전망	95.3	92.9	104.2	87.9	93.4	98.0
	인건비	실적	89.5	92.9	104.2	69.0	102.9	69.1
		전망	88.5	92.9	100.0	70.2	97.3	75.0
자재	수급	실적	90.4	92.9	95.8	81.4	95.8	82.2
		전망	90.8	92.9	95.7	82.8	92.4	88.2
	비용	실적	64.7	85.7	66.7	37.9	81.9	38.6
		전망	63.2	78.6	66.7	41.4	74.5	46.1

주 : 실적은 2012년 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3월 예측지수임.